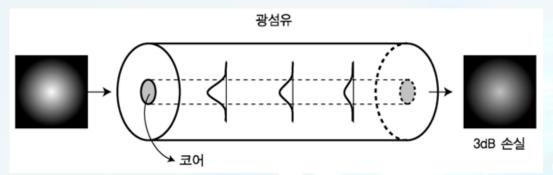
6주 2강. 단일모드 광섬유의 전송 특성



- ❖ 앞으로 다룰 모든 광섬유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, 단일모드 광섬유를 의미함
 - 손실
 - 광섬유 안에서 광전력의 손실(loss) 또는 감쇠(attenuation) 는 광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제한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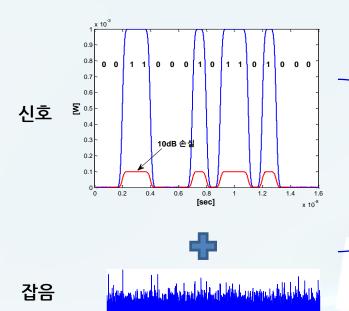
손실이 적을수록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, 또는 증폭기 사이의 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, 적은 비용으로 광통신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.

- 광섬유의 손실 특성
 - 손실의 원인
 - 광섬유를 구성하는 물질(SiO₂)에 의한 손실
 - 제조 과정상 불순물에 의한 손실
 - 도파관 구조에 의한 손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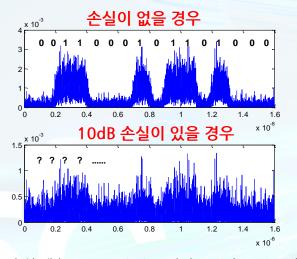
- 광섬유의 손실 특성
 - 실리카(SiO₂)는 빛을 흡수하여 손실 발생
 - 실리카 분자 자체의 공진으로 인하여 공진 주파수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하여 손실이 발생
 -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에 의한 공진으로 빛이 흡수되어 손실이 발생
 - 약 1.6μm 이상에서 손실이 증가하는 것은 주로 실 리카의 적외선 흡수 때문
 - 손실 계수가 약 1.39 µm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제조 과정에서 수분이 첨가되어 발생하는 OH 이온에 의한 흡수 때문
 - 레일리 산란(Rayleigh scattering)에 의한 손실
 - 빛의 산란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
 - 파장이 약 1.5μ m보다 짧을 때는, 주로 레일리 산란 에 의해 손실 계수가 결정

- 광섬유의 손실 특성
 - 그 외 손실의 원인
 - 제조 과정에서 광섬유의 불완전한 원주형과 코어와 클래딩 사이의 일정하지 않은 굴절률 차이 등도 손실을 발생
 - 휨 손실(bending loss)
 광섬유가 직선에서 벗어나 구부러질 때, 그 반경이 짧으면 모 드 에너지 일부가 클래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
 - » 휨 반경 R>5mm이면 손실이 0.01dB/km 이하로 낮으므로 무시할 수 있다.
 - 두 광섬유를 연결할 때 발생하는 결합 손실(coupling loss)
 - » 커넥터(connector)는 약 0.25dB 이하의 손실 발생
 - » 융착 접속(fusion splicing)은 0.1dB 내외의 손실 발생

- 손실의 영향
 - 전송 거리가 증가할수록, 광섬유의 손실 때문에 수신 기에 도달한 광신호의 전력은 낮아짐
 - (전력손실[dB] = 전송거리[km] × 광섬유의 손실계수 [dB/km])
 - 따라서 광신호는 잡음과 구분하기 어려워,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해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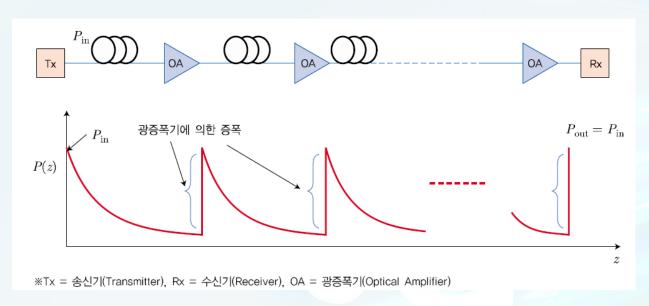
잡음 영향하의 수신 신호



손실 계수 α_{dB} =0.2dB/km 라면 10dB는 50km의 전송거리(광섬유 길이)에 해당

- 손실 보상
 - 잡음에 의해 신호를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거리(>~100km) 전송에서는 손실 보상이 필수적임
 - 손실 보상 방법
 - 제4세대 이전은 재생기(regenerator)(=광수신기+광 송신기) 사용
 - 제4세대(파장분할다중화 전송) 부터는 광증폭기 사용
 - →광증폭기는 전기적 신호로 바꿀 필요 없이, WDM 시스템의 각 채널 광신호를 동시에 증폭할 수 있으므로 거의모든 WDM 시스템은 광증폭기로 손실 보상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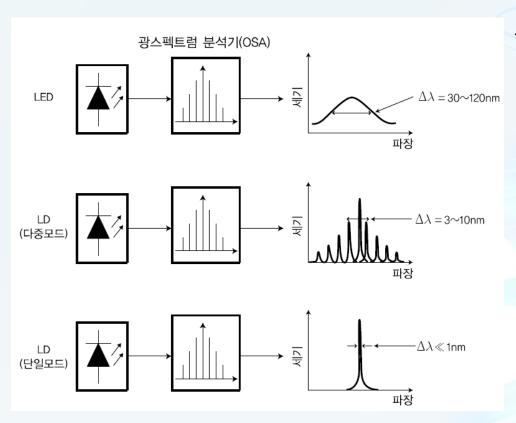
- 군속도 분산
 - 분산은 펄스가 퍼지는 현상
 - 이웃하는 펄스 사이의 간섭 현상(ISI, Inter-Symbol Interference)을 야기하여 광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제한하는 주요 원인



- 군속도 분산
 - 단일모드 광섬유에서는 모드 분산이 존재하지 않지 만, 다중모드에서는 모드 분산보다 그 영향이 미미 해 무시할 수 있었던 군속도 분산(GVD, Group-Velocity Dispersion) 때문에 시스템 성능에 제한 을 받는다.
 - 다중모드 광섬유에서는 무시할 수 있었던 군속도 분산이, 단일모드 광섬유에서는 주요 성능 제한 원 인이 되는 이유는, 단일모드 광섬유가 주로 고성능 이 요구되는 고속 장거리 통신에 주로 사용되기 때 문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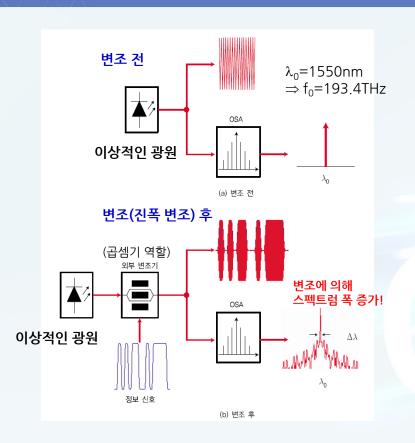
- 광신호의 스펙트럼
 - 군속도 분산은 펄스를 구성하는 여러 스펙트럼 성분이 각기 다른 속도로 광섬유 안에서 전송되 기 때문에 발생한다.
 - 군속도 분산을 색 분산(chromatic dispersion) 이라고 한다.
 - 군속도 분산의 원인
 - 광섬유의 재질인 실리카의 굴절률이 파장(또는 주파수)의 함수
 - → 재료 분산
 - → 광섬클래딩과 코어로 구성된 원주형의 도파관 구조→ 도파관 분산
 - 광펄스를 구성하고 있는 스펙트럼의 폭이 좁을수록 군속도 분산 효과는 낮아진다.

- 광펄스를 구성하고 있는 스펙트럼 성분의 두 가 지 발생 원인
 - 광원
 - LED나 레이저다이오드(LD, Laser Diode)의 출력 파장이 단 하나의 파장이 아니라 일정한 스펙트럼 폭이 있는 여러 파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.
 - 광원의 스펙트럼 폭이 좁을수록 분산 효과는 작아지며, 따라서 고속 장거리 광통신 시스템 에서는 단일모드형 레이저다이오드를 주로 사 용한다.



❖ OSA(Optical Spectrum Analyzer) = 광스펙트럼 분석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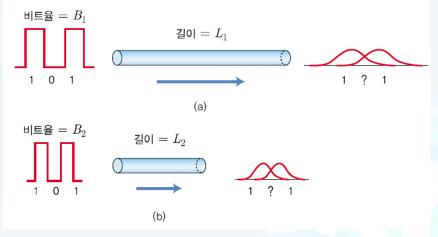
- 광펄스를 구성하고 있는 스펙트럼 성분의 두 가 지 발생 원인
 - 변조
 - 광원의 출력이 이상적으로 단일 파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송할 정보 신호인 펄스에 의해 변조가 되면 유한한 대역폭을 가지게 된다.
 - 변조기를 사용하지 않고, 레이저다이오드를 직접 변조하는 때도 있는데, 이때는 처핑 (chirping) 현상에 의해 대역폭이 더욱 넓어진다.





- 표준 단일모드 광섬유의 분산 계수
 - 표준 단일모드 광섬유(SMF, Standard Single-Mode Fiber)는 199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매설되기 시작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매설되어 있음
 - 제2세대 광통신 시스템은 분산 계수가 거의 0인 1.3µm파 장을 사용하고, 재생기를 사용했으므로, 분산이 시스템 성 능을 제한하는 주요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.
 - 광섬유의 손실이 최소가 되는 1.55 µm 파장 대역으로 옮겨오면서 광섬유의 분산 특성이 주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다.
 - 1.55µm 파장 대역에서는 분산 계수가 16~18[ps/(nm·km)] 정도로 크고, 또한 재생기 (regenerator)를 사용하지 않고, 광증폭기를 사용하게 되 면 전총 거리에 따라 분산이 누적되기 때문이다.

■ 분산에 의한 BL곱의 제한



→ 비트율(bit rate)을 증가시키면, 분산에 더 쉽게 영향을 받아, 전송 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.

